

“작가는 사회 관찰자...새로운 종이 작업 시도”

2018 주목! 이 사람

〈6〉 광주미술상 수상 작가 신호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선정
2월 25일까지 ‘피안의 섬’전

윌슨 아트페어에서 종이 작품 인정
홍콩 문화기획사 전속작가 활동중
올해 홍콩 개인전·아트페어 참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호윤-피안의 섬’전에서 포즈를 취한 신호윤 작가. <하정용미술관 제공>

암도적이다. 천정에 매달린 건 거대한 붉은 형상의 조형물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미술관 1층 전시실 전체를 차지한 작품은 15m에 달하는 ‘군도-섬 006’이다. 작품은 붉은 빛깔 수많은 종이 가닥으로 만들어졌다. 다양한 모양의 종이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작품 속에 설치해놓은 조명을 받아 앞뒤전후 사방에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유심히 들여다 보니 허공에 매달린 건 ‘사람’이다. 작품을 제작한 신호윤(43) 작가는 “떠돌아다니는 느낌, 부유(浮遊)하는 느낌을 담고 싶었다”며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고 했다.

‘종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신 작가는 지난해말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청년작가 초대전’에 선정돼 2월 25일까지 초대전 ‘신호윤-피안의 섬’전을 열고 있다. 청년작가 공립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건 큰 행운이다. 신 작가는 지난해 ‘광주미술상’도 받았다. 선배 작가들이 기금을 마련해 수여하는 이 상은 미술인들이 가장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상이다. 신 작가 역시 “존경하는 선배님들에게 받은 상이라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9년작부터 현재까지 작품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미술관 잔디밭에도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작가의 육성을 만날 수 있는 영상도 상영중이다.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만들기 좋아했던 그는 미대 출신인 어머니의 권유로 조선대 미대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조각기, 설치 미술을 베이스로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영역의 작업을 진행했던 그는 한 때 미술을 그만두려고도 했었고 그 때 만난 게 바로 ‘종이’였다. 가까운 친척이 미국에서 사망해 슬픔에 빠져있을 즈음 한 갤러리에서 ‘가을편지’를 주제로 작품을 요청했다. ‘허망하게 꺾어버린’ 친척에게 수의를 입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편지 등을 잘라 종이로 수의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작업 이후 ‘종이’는 신 작가의 주요 소재가 됐다.

신 작가는 종이의 양면성에 주목했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구겨지고, 찢겨지는 게 꼭 인간같다는 생각을 했다.

‘수상한 꽃’ 연작은 종이와 함께 거울을 소재로 삼아 관람객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2007년 당시 유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외국 문화에 대해 고민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모습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전통문화는 왠지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조화로운 수용이 필요하다고 봤죠.”

“본질은 없다” 시리즈는 다비드상, 피에타상, 석가여래 좌상 등 우리에게 친숙한 형상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종이를 자르고 접착제를 붙여 만든 작품들은 앞쪽에서 보면 형상이 없지만, 옆에서 보면 그제서야 형상이 보인다.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허상일 뿐이고 결국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인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눈 앞에 있다고 다 진실이라는 법은 없죠. 허상이 아니라 현상을 보는 진짜 학습을 해야합니다.”

자화상을 담은 ‘군도’ 시리즈는 “고독, 우울증, 대인 기피 등 현대인의 공포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만들어낸 작품”이라며 “그 고독을 즐기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 대신 철로 작업한 작품 ‘반가사유상’을 처음 선보였다. 중국에



종이를 가늘게 자른 후 접착제로 붙여 제작한 ‘피에타 상’

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으로 철을 가늘게 절단 한 후 5000여개 볼트와 1만여개 너트로 조립한 작품이다. 소재 다양화와 작품 대형화의 출발점이다.

처음부터 종이 작업을 인정받은 건 아니었다. 2009년까지도 대리운전, 배달, 막노동 등 일부러 ‘미술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했다. “종이로 작업하는 게 생활이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을 땐 ‘오기’도 생겼다. 힘을 실어준 건 2010년 윌슨 아트페어에 참가였다. 외국 컬렉터들에게 반응이 좋아 작품을 모두 판 게 계기가 됐다.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활동은 전환점이었다.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고 그 때 인연으로 현재 홍콩 문화기획사 ‘Platform D’art’의 전속작가로도 활동중이다.

한 가지 소재로 작업하는 건 힘든 일이다. 슬럼프가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바로 지금”이라며 웃었다.

“지금의 종이 작업을 꾸준히 하겠지만 새 작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이게 신호윤 작품이야? 애가 왜 이런 작업을 하지? 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던 새로운 시도가 쉽지만은 않네요. 키네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종이 작업도 생각중인데 그러면 공학을 공부해야 해요. 사운드 아트 쪽도 고민중입니다. 몸부림 중이고 방향중이죠. (웃음)” 중국 활동을 병행하는 신 작가는 올해 홍콩 아트페어 참여와 함께 홍콩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예전에는 작가가 이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엔 작가는 사회의 관찰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해 압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신 작가는 좋아하는 선배들로부터 작가의 직업윤리, 작업하는 태도 등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고 했다. 또 대학 시절 휴학 후 울진 원전,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세상을 배웠다고 했다. 신 작가는 20대 후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고 그때 ‘버킷 리스트’를 썼다.

“당시 오래 못 살거라고 생각했어요. 마흔까지 살면 많이 살거라는 생각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써내려갔죠. 나 대신 너무 고생한 각시 일 그만두게 하는 것, 집 사는 것, 외국에서 전시하는 것 등등을 적었어요. 열심히 이루려고 했고 다 이뤄져야겠어요. (웃음)”

“새로운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야하지 않겠냐는 말에 그는 웃기만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작가 지원 기금 마련전 ‘회화의 시간’

31일까지 김넷과 갤러리...지역작가 다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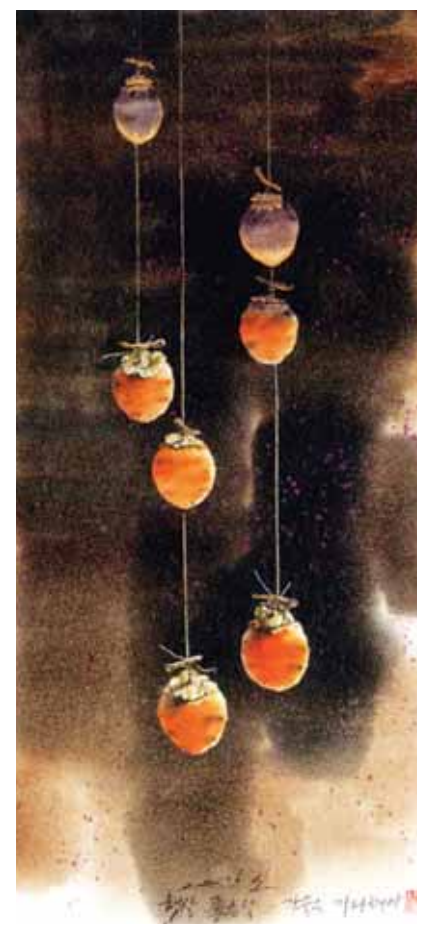
김해성 작 ‘친구들’

지난해 문을 연 문화공간 ‘김넷과’가 지역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일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은 작품을 내놓고 힘을 보탤다.

2018 청년작가 창작 지원 기금 마련전 ‘회화의 시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김넷과 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 지역 청년 작가 육성과 창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의 판매수익금은 2018년 청년 작가 발굴과 창작 지원금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김해성·김효삼·류현자·박구환·송필용·윤남웅·이조흠·임남진·장용림·정해영·조규철·조선아·최재영·한부철·한희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인성·성혜림·박성완·박정일·송영학 작가 등 젊은 화가들도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를 마친 후 이번 참여 작가들은 신진작가 공모전을 개최해 직접 후원할 신진 작가들을 선정하고 개인 초대전과 창작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효삼 작 ‘햇살 좋은 날-가을은 기다려야’

광주시립미술관 무술년 세화전 참여 작가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해 ‘황금개’를 주제로 한 시민 행복 기원의 ‘세화전’에 참가할 지역 작가를 모집한다.

오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본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역작가 40여명과 지역사회 리더 및 일반 시민 10여명 등 모두 50여명이 회화, 사진, 서예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의뢰하고 지역작가는 작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선정된다. 전시회에 참여할 작가 40명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전시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학예연구실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작품 주제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사회적 바람 등을 ‘개’를 소재로 표현한 작품(글)이면 된다. 개막식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작가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떡국 나누기 행사로 진행된다. 문의 062-613-71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WAG' THE DOGS

기획-광주올리 다시보기-프로그램
문화자산만들기
광주올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②
'축가사'가나올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SLOVENIA

동네 책방에 빠졌다-책방발굴②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매망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예요”

취재의 전서
유형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박물관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문장이 숲 속은 문학관을 찾아요③
눈부름은 시 정신이신다
신동엽 문학관

해양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계마을, 울진 평해읍 거길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마을

트렌드
‘위로 한컷,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배국남의 대중문화 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매망이 만난 이 사람
5·18평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방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갈 지니 순한 땅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안의 마음
- 맛있고 멋져서 소문난 화순두부